

길림성 통상구, 리용객과 운송량 크게 증가

—출입경 인원 174 만명, 교통운송수단 9 만 4,000 대



지난해 길림성 각 통상구의 리용객과 운송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림성출입경변방검사총소에 따르면 지난해 길림성 통상구의 루적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174만명, 교통운송수단은 9만 4,000대(연대수)

로 전년 대비 각각 86%와 62% 증가했다. 이중 외국인인 2023년보다 81% 늘어난 77만 5,000명에 달했다. 크로스보더(跨境) 관광객은 약 100만명으로 161% 급증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15만 4,000명으로 무려 236%

확대됐다. 무비자 입국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관광시장도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길림성 훈춘고속도로와 연길공항통상구 통관 출입경 인원은 2023년 대비 각각 129%,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과 일본 관광객 증가세도 눈에 띄는데 우리 나라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한 첫달에 무비자로 길림성을 방문한 한국, 일본 국제 관광객은 전년 대비 무려 386.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신화사

길림성 온실하우스 농민 소득 증대에 동력 부여

1월에 들어 동북 대지가 은빛으로 뒤덮인 가운데 길림성 농촌에서 적지 않은 농민들은 한창 현대화 온실하우스에서 바빠 돌아치고 있다. 레이저전등에서 '투광 숨이불',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장비가 보태지고 있는 가운데 한가한 겨울을 보내던 농민들이 점점 더 많이 과일, 남새 온실하우스를 경영하며 증산, 증수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길림성 백산시 무송현 로수하진 동승촌에서 하우스 딸기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촌민들은 딸기를 따고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촌에서 2023년부터 건설한 현대화 온실하우스는 마을의 70% 정도의 농가를 이끌어 딸기 재배에 종사하게

하여 당지 취업과 소득 증대를 실현했다. 장백산지역에 위치한 동승촌은 겨울철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20~30도에 달한다. 과거 이곳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에 의존하여 과일과 남새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았다. 촌간부 리효동은 비닐하우스의 보온 난제가 현재 새로운 장비의 응용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소개했다. 열기가 느껴지는 남새하우스에서 리효동은 온실의 꼭대기 부분을 쌍층 재료로 설계하여 중간층이 '투광이불'로 되게 함으로써 추위만 막고 햇빛은 막지 않게 하였으며 비닐하우스의 벽체는 보온재료를 사용하여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하는 온도조절기로 되게 하였다고 소개

했다. 최근 2년 동안 길림성에서는 현대농업을 힘써 발전시키는 가운데 온실하우스경제를 점차 성장시키고 있다. 공주령시 범가툰진 향통생태현대농업산업단지 온실하우스에는 감지기와 관측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비닐하우스내 토양 습도, 온도, 광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관측할 수 있어 고효과적이고 정확한 재배 관리를 실현하였고 나아가 과일과 남새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온실하우스의 천장에는 장방형 조명등을 설치했다. 산업단지 책임자 진정은 이는 일반 전등이 아니라 식물 생장 촉진에 전문 사용되는 레이저전등으로서 밤에 광도 증가

를 통해 남새의 자람세가 더욱 좋아지게 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50채의 온실하우스를 갖고 있는 이 단지는 매주 수만근이나 되는 남새를 생산하여 주변 2,000여가구의 남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길림성은 하우스 면적이 80만 무 정도에 달하고 성급 '장바구니' 등급보장기지를 근 200개 보유하고 있는데 하우스 과일과 남새의 연간 생산량이 1,800만톤 정도에 달한다. 길림성농업농촌청 원예특산물처 양명 처장은 길림성은 한창 백만무 하우스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새로운 장비비용을 가속화하고 하우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신화사

연변 설맛이 상품시장 가동



17일, 연변조선족자치주부련회, 주당위 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주상무국, 주총공회, 공청단연변주위에서 주최하고 주녀성기업가협회, 연길시부련회에서 주관한 연변 '녀성을 위한 좋은 장터, 새해맛이 즐거운 쇼핑' 설맛이 상품시장이 연길시 만달광장에서 가동되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징을 울려 상품시장의 개장을 알렸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주당위 12기 7차, 8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소비 진작 행

동에 초점을 맞춰 음력설 기간 연변 특색상품 전시를 위주로 미식품평, 특색공연 등 다양한 형식을 결합하여 광범한 대중들에게 편리한 '원스톱' 구매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업체의 흡입력을 가일층 증강하고 내수 잠재력을 방출하며 '녀성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경사스럽고 즐겁고 화목한 새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연변 '녀성을 위한 좋은 장터, 새해맛이 즐거운 쇼핑' 활동은 음력설맛이 상품시장과 보름맛이 상품시장



/ 연변발부

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연길시 만달광장에서 열리는 음력설맛이 상품시장은 주내 녀성기업인 운영 3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연변 특색음식, 민속식품, 생활용품, 농부산물, 복장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 밖에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변로동자문화관에서 열리게 되는 보름맛이 상품시장은 신용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며 브랜드 우세가 특출한 주내 20여개 녀성기업인 운영 기업이 참가해 연변의 특색농부산물, 문화관광상품 등을 전시해 짙은 명절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 연변발부

연변 랑곡 총생산량 7년 연속 증가



연변조선족자치주농업농촌국에 따르면 2024년 연변의 농업은 다차원적으로 돌파를 이룩했다. 료해에 따르면 경제지표가 좋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 주 농업, 립업, 목축업, 어업 생산액은 142억 원으로 증가율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8,430 원으로 증가율이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 토대가 더욱 단단해졌는데 랑곡 총생산량은 38억 3,2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7년 연속 증가를 실현했다. 흑토지를 적극 보호하고 경작지 료작 123만 4,000 무, 보호성 경작지 137만 6,400 무를 완수했으며 경작지 품질 등급이 4.57로 상승하고 주요 알곡작물 경작 종합 기계화 수준은 96.61%에 이르렀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했는바 1,890 가구, 3,327명 검측 대상에 대한 부족 조치를 전면 실현했다. 1만 9,600명의 빈곤해탈 대

중을 이끌어 2만 4,800 무의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152개 취업부속 작업장을 건설했으며 38명의 향촌 기술자를 육성했다. 특색산업의 활기를 분출했는바 고기소 사육 전문촌이 197개로 늘어나 동기 대비 27.1% 증가하고 씨암돼지를 3만 400마리에 도달시켰다. 인삼 재배 규모가 5만 무를 초과하고 수산물 생산량이 1만 4,059 톤에 달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을 다그쳐 추동했는바 2개 국가농업산업강진, 4개 성급 현대농업산업단지를 건설하고 6개 성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을 발전시켰으며 5개 농산물이 새로 전국 유명, 특색, 랑질, 참신 제품 명단에 올랐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꾸준히 심화했는바 1개 '아름다운 향촌 시범촌', 43개 '100개 시범촌', 139개 '깨끗하고 아름다운 촌'을 새로 건설했다. / 연변조간

연길, 제야 음식 예약 폭주

선달그믐날 저녁식사, 제야 음식(年夜饭)이라고도 하는데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뱀해 설날이 다가오면서 명절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길시 여러 음식점체들은 제야 음식 예약이 고봉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변백산호텔, 카이로스호텔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호텔의 제야 음식은 세트 메뉴 형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식사 인원수와 요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연변백산호텔 마케팅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제야 음식 예약이 폭발적이며 현재 대부분이 예약되었다고 한다. 많은 손님들이 개인 맞춤형 요리를 위한 룸을 예약하고 있으며 풍족하게 즐길 수도 있고 겸손하게 즐길 수도 있다. 백산호텔에서는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조리음식 선물 세트, 분식 선물 세트를 준비하여 설명절 기간 가족모임 및 친척 방문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 연변조간

카이로스호텔은 중국식 설날 음식과 서양식 설날 음식을 선보였다. 카이로스호텔 책임자에 따르면 그중 1,388 원의 '길상여의' 세트 메뉴는 랑제 4가지, 익힌 요리 8가지, 주식 2가지로 구성되어 8~10명이 식사할 수 있으며 식사전 과일도 제공되는데 이 세트 메뉴는 경제적이고 실속 있어 현재 예약이 많이 된 상태다. 이 밖에 588 원 세트 메뉴와 818 원 세트 서양식 제야 음식 메뉴도 제공된다. 시민 리녀사는 지난 12월말에 이미 제야 음식과 원하는 식당과 룸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시민 류선생도 선달그믐에 가족들이 집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지 않고 편하게 설을 잘 쇠게 하기 위해 미리 제야 음식을 예약했다고 한다. 제야 음식의 폭발적인 예약 열기는 새해 음식 소비 시장의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음력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음식 소비 시장이 지속적인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변조간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단지 입주 대상 시험생산 시작

일전 소세계(매하구) 고기소산업발전유한회사는 정식으로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단지에 입주하여 시험생산 단계에 들어갔다. 이로써 600여일의 긴장한 시공을 거쳐 매하구시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사슬이 가장 완벽한 현대농업산업 대상인 매하구시고기소산업융합시범단지가 수확의 순간을 맞이했다. 료해에 따르면 매하구시고기소산업융합시범단지는 현재 매하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현대농업산업 선도 대상으로서 우량종 번식, 고기소 사육, 고기소 도축, 사료가공, 식품가공, 전시판매, 교역시장 및 저온물류 심층 융합을 집대성한 전체 산업사슬 대상 기지이다. 이 공업단지가 생산에 본격 투입



되면 고급 고기소 2만마리를 비축할 수 있고 매하구 및 주변 지역의 20만마리 고기소를 사육하도록 추동하며 년간 고기소 제품 10만톤, 고기소 도축 20만마리, 가공 사료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고기소 거래량 50만마리를 촉진하여 3산 통합 총생산액이 100억 원 이상에 달하고 납부할 세금은 3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500명 이상의 취업을 이룰 전망이다. / 길림일보